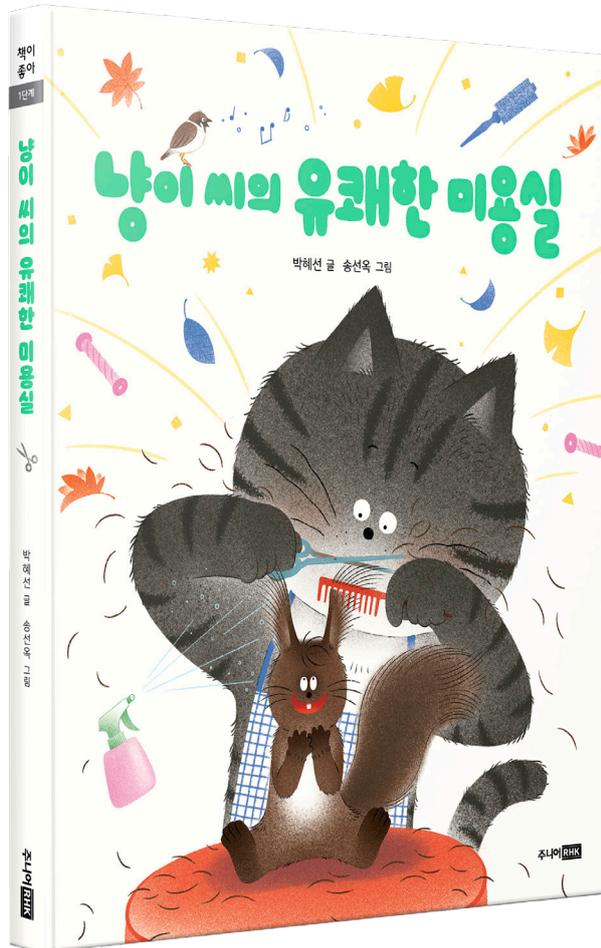


#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냥이 씨의 유쾌한 미용실>

—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



한국아동문학상  
수상 작가  
작품

화이트  
레이븐스  
선정 작가  
그림

현직  
초등 교사  
강력 추천

## 냥이 씨의 유쾌한 미용실

박혜선 글 | 송선옥 그림 | 80쪽 | 15,000원 | ISBN 978-89-255-7481-3 (73810) | 초등 저학년 대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탐험	(주제) 그곳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2-1 마을	(주제) 마을을 상상해요
1-1 사람들	(주제) 고민을 들어 봐요	2-1 국어	5. 마음을 짐작해요
1-1 국어	6. 또박또박 읽어요	2-1 국어	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1-2 국어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2-2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드디어 냥이 씨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전 이야기 《냥이 씨의 달콤한 식당》에서 숲속 곤충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던 냥이 씨가 어디로 여행을 갔을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냥이 씨가 도착한 곳은 숲속 어느 마을에 주인 없이 비어 있는 미용실이에요. 지붕을 덮고 있는 커다랗고 멋진 단풍나무의 매력에 끌려서일까요. 냥이 씨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낡고 먼지 쌓인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런데 미용실이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동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냥이 씨는 동물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결심하지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먼저 생각하는 냥이 씨는 일주일간 최선을 다해 미용 기술을 연마한 뒤 더 이상 올 수 없는 ‘이오순 할머니’ 대신에 ‘냥이 씨의 유쾌한 미용실’을 열어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책임감 넘치는 냥이 씨가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들이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동물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 달라고 주문하면 냥이 씨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시술해 줍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손님들 모두 바뀐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고 냥이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냥이 씨는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찾아온 동물들에게 왜 다른 모습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어도 실례가 될까 봐 참고, 조언해 주고 싶은 마음도 꼭 참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깨닫기를 바라며 기다려 줍니다. 냥이 씨의 배려가 너무 훌륭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함부로 간섭하고 조언하지 않으며, 존중하고 기다려 주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냥이 씨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기준에 맞추어 나를 억지로 꾸미고 있지는 않았는지도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진 자기만의 아름다움과 내면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매력을 지키는 일도 놓치지 말아요. 고유한 나만의 매력을 잘 지켜 내자구요!

김진향(수원 영동초등학교 교사)

오래오래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초등 교사입니다. 어린이책을 읽고 어린이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이책에서 부모나 어른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깨닫기도 합니다. 책과 책 모임을 사랑하고, 책 읽는 사람들의 연결과 선순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 졸업(아동문학독서논술 전공)
- 어린이책연구모임 <책벗> 정회원
- 예스24 스쿨콜라보 기획 위원(현직 교사가 추천하는 책 소개)

# 미션 1 : '미용실' 하면 떠오르는 것



'미용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를 자유롭게 써 보세요.



미용실과 관련된 추억이나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



---



---



사람들은 미용실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

# 미션 2 : 내가 차리고 싶은 미용실



냥이 씨는 자신이 운영할 미용실의 이름을 '유쾌한 미용실'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이 미용실을 연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나요? '유쾌한'이라는 말 대신 다른 꾸밈말을 붙여 보세요.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위의 미용실 이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여러분의 미용실 이름을 지어 보세요. 그리고 그 미용실의 간판도 상상하여 그려 보세요.

\_\_\_\_\_ 의 \_\_\_\_\_ 미용실

# 미션 3 : 왜 빈집이 되었을까?



다음 글을 읽고 미용실이 왜 빈집이 되었는지 짐작해 보세요.

“알아요. 원래 주인은 이오순 할머니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 오지 않을 거예요. 다들 꼭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떠났지만, 여태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빈집에 당신이 찾아 온 거예요.”

너구리가 말하는 ‘이오순 할머니’가 사진 속 할머니라는 걸 냥이 씨는 척 알아챘어. 이런 시골 마을과 빈집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건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라는 걸 냥이 씨도 잘 알고 있었거든.

- 《냥이 씨의 유쾌한 미용실》 중에서



- 이오순 미용실은 왜 빈집이 되었을까요? (자유롭게 적어 보기)

---



---



---



---



---



---



---



---



---

# 미션 4 : 냥이 씨의 장점은?



책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냥이 씨의 말과 행동을 표현한 문장을 찾아보고 어떤 성격과 장점이 드러나는지 적어 보세요.

찾은 표현	냥이 씨 성격이나 장점
새로운 일에 늘 마음이 설레는 냥이 씨였거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용감한 성격



# 미션 5 : 친구를 사귀는 방법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고민이었던 사자와 수달에게  
냥이 씨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보세요.”라고 조언해 주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사자와 수달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사귀는 방법’을 사자와 수달에게 들려주세요.



다들 내 갈기만 보면 도망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면  
무섭다고 줄행랑을 치지. 누가 내 친구가 되어 주겠어?

사자야,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



친구들이 날 봐 주지 않아. 놀아 주지도 않고.  
매일매일 얼룩덜룩하게 털도 염색했는데 말이야.  
괜히 매끈한 내 털만 얼룩덜룩 엉망이 되었어.

수달야,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

# 미션 6 : 이 머리를 해 주고 싶어!



만약 여러분이 냥이 씨처럼 '재미나고 특별한 미용실'의 주인이  
된다면 손님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또 그 손님에게 어떤 헤어 스타일을 해 주고 싶나요?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 :

해 주고 싶은 헤어 스타일 :

(줄글로 묘사해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 표현해 봐도 좋아요!)



그 이유 :



## 미션 8 : 나의 장점은 이거야!



근사하게 꾸민 외모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의 장점을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



---



---



---



## 미션 9 : 내가 매기는 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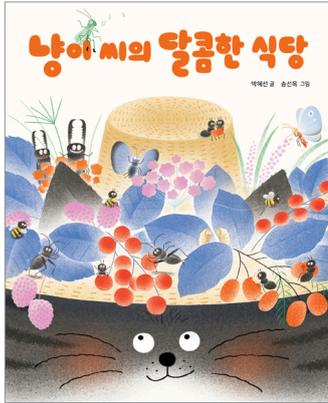
《냥이 씨의 유쾌한 미용실》 재미있게 읽었나요?  
별점을 색칠해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과 추천하는 이유도 적어 보세요.

별점 주기	☆ ☆ ☆ ☆ ☆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	
추천하는 이유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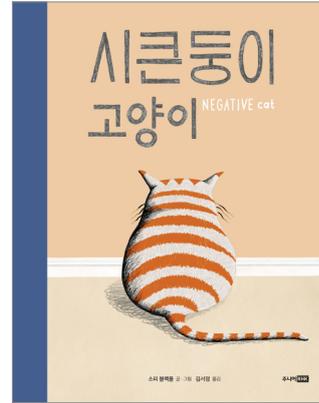
《냥이 씨의 유쾌한 식당》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결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냥이 씨 유니버스’  
그 시작이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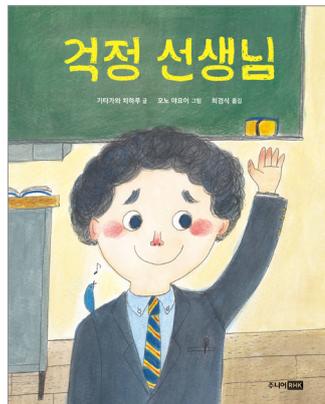
《냥이 씨의 달콤한 식당》  
박혜선 글 | 송선옥 그림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 보고 싶다면



《시큰둥이 고양이》  
소피 블랙울 글·그림 | 김서정 옮김

그림책에서 읽기 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을 찾는다면



《걱정 선생님》  
기타가와 치하루 글 | 오노 야오이 그림 | 최경식 옮김

한 마을에서 유대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여기는 비비타운》  
에포닌 코티 글·그림 | 황정하 그림